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놀이시설 운영

전주시, 어린이 보호대책 핵심 저감대책 강화 방안 추진

전주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의 주말과 공휴일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연일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내놀이공간 운영을 포함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장·단기 보호대책을 핵심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유료로 운영되던 자연 생태관 등 공공시설을 해당시기에 무료로 개방하고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강당에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실내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복지관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등 폐질환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2월과 3월 4차례에 걸쳐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 배출량 20% 감축 △시·구 관할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운영 단축 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사업장 공사시간 50%이상 단축·조정 등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일과 7일에는 이틀간 살수차(8톤) 20대를 투입해 주요간선도로 중심으로 2,620여 톤의 도로 살

수 작업을 실시했으며, 구청에서 보유 중인 산불진화방재차량 5대를 투입해 전주 시내 어린이공원 114개소(완산58, 덕진56)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청소를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환경문제로 시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대책들을 보완하고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의 2개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했으며, △전주시 미세먼지 인화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 △대기오염측정소 설치(1개소) △노후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1,046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193대) △어린이집·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3,107대) 및 마스크(2만1,636명) 보급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송효철 기자



아름다운 갈라꽃 기를 끄는 꽃이다.

13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한 갈라꽃 품종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화훼, 열정을 의미하는 갈라는 결혼식 부케 등으로 인기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국내 대표 문화도시 위상 재확인

전주시, 문체부 실태조사서 지역문화지수 2회 연속 전국 종합 1위

전주시가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전주시가 국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주시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정책을 활발히 펼쳐온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문화정책과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개 분야, 총 28개 평가항목에서 전 부문에 걸쳐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 활동과 함유 정도를 평가한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전국 15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 결과'의 지역문화지수 종합 평가에서는 전국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3년 만인 지난 2016년 조사에서는 5계단이나 경총 뛰어오른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시는 완산권역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과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주만의 문화브랜드 경쟁력을 높였고 팔복예술공장 등 시민생활권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을 건립, 지붕 없는 미술관·예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전주한지문화축제·전주비빔밥축제 등 3대 대표축제 개최 △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전주동화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 등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쳐왔다.

아울러, 시는 전주를 지속가능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문화발전전략인 2030 전주문화비전도 완성해 앞두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 도시의 시대를 끌어가는 핵심 가치는 정체성, 그러니까 '그 도시 다움'에 있다"며, "'그 도시 다움'은 바로 문화고, 전주는 '전주 다움'을 가장 잘 찾아내고 지켜가는 도시다. 전주다움으로 우리시민들이 행복하고 다른 세계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청명·한식 맞아 개장유골 화장 확대

전주승화원, 내달 4~7일 4일간 150기 운영

전주승화원이 한식(4월 5~6일)을 맞아 개장유골 화장기수를 확대 운영한다.

13일 전주시살골단지(이사장 전성환)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청명, 한식을 전후로 총 4일을 특별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유골화장 예약기수를 총 150기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6기의 화장로 중 3기는 시신 화장 나머지 3기는 개장유골 화장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한식일인 6일 하루 동안 유골 화장에 총 80기를 운영한다. 평일 유골화장 기수(8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전 8시부터 모든 화장로를 풀가동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개장유골 화장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화장일 15일 전부터 가능하다. 개장신고서 발급기관명, 발급번호를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입력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개장유골 화장료는 전주, 완주군 소재 2만8000원, 도내 타 시군은 9만원이다. 효자공원묘지 내 소재한 개장유골은 화장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며 봉안시설(자연장 포함)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한편,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전북 최초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채용

전주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발달장애인 사서보조로 채용키로 했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4명을 사서보조 일자리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사서보조 일자리를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발달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될 4명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사서보조일자리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 향후 도서 정리 등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어르신 통합돌봄 유치 총력전

전주시, 공모신청서 보건복지부 제출

결과 22일경 발표 통과 후 최종 선정 도전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인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정부 국정전략인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8일 공모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복지부는 오는 4월 4개 분야(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의 8개 자치단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 결과는 오는 22일쯤 발표될 예정으로 심사 통과 후 시는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통해 선도사업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

시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의 복지감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발굴해온 '건강 음식재료 지원사업' 등 어르신 통합 돌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분야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편성, 사전 만남과 탈레이 간담회, 종사자 면담 등 56회 만남을 통해 763명의 의견을 청취해 지역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38개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오는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시행할 예정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217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새마을을 조성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지원을 받는 등 230억 가량의 재정지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며 행복하게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이라며 "전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의붓딸 성추행' 60대 극단배우 구속 기소

"가벼운 애정표현" 혐의 부인

극단배우가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극단배우 A모(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의붓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의붓딸에게 "엄마를 보러 놀러 와라"고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친아버지와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성기가 아프다"며 피해자가 친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표현은 했으나 성폭행이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불구속기소 의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강석훈 기자

"돈도 못벌면서"

아내 살해 50대 구속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모(5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 35분경 전북 군산시 내운동 자택에서 아내 B모(45)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목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벌어서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는 핀잔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흉기를 들고 체포에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긴급체포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서 스크린골프장 침입

흡인원 상금함 텅 일당 4명

스크린골프장에 침입해 흡인원 상금함을 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3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A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경 전주 완산구 한 스크린골프장에 들어가 현금 220만원이 들어있던 흡인원 상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들은 해당 스크린골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청소하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와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생각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카드 훔쳐 쓴 50대 검거

카드를 훔쳐 부정사용한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3일 절도 혐의 등으로 A모(54)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경 전주 덕진구 한 마트에서 B모(26)씨의 카드를 훔친 뒤, 8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와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청은 13일 상관리조트에서 강인철 전북청장 및 각 경찰서 경무계장과 홍보담당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기능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홍보 경찰 직무역량 강화

전북경찰청, 홍보기능 공감 워크숍

전북경찰이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상관리조트에서 강인철 전북청장 및 각 경찰서 경무계장과 홍보담당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기능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홍보 경찰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범죄신고 112·화재신고 119